



QR코드를 찍어주세요

KC Newsletter vol.26



Greetings

[LCI] 새로운 대표이사
Richard C. ("Rich") Staehle



Networks

[KC환경서비스비즈 Division]
제2회 KC환경서비스 관계사 체육대회

[안성유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서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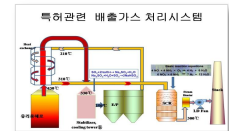
[안성유리] High 5! 결과보고 및 포상 실시



[안성유리]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특허 취득

[안성유리] 이선영상무 기술경영사 자격취득

[KC코트렐] 2011 10 01 인사 발령



[KC환경건설] 사명변경

Customers

[제철소식] 동반성장지원단 활동현장을 가다 -
KC코트렐, 해외 파견·영업정보 관리 지식경영시
스템 구축 도와



SNNC, 니켈 제련 증강사업 본격 '드라이브'
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시와 투
자 협약
2014년 2기 제련설비 준공 예정

Economic Trend

[환율시장] 10월 달러/원, 1,140원 ~ 1,230원,
엔/원, 1,460원~1,600원, 유로/원 1,540원
~1,630원



[원자재시장]

KC Edition

[그 때 그 시절 사보연재] 93' 지금, 우리는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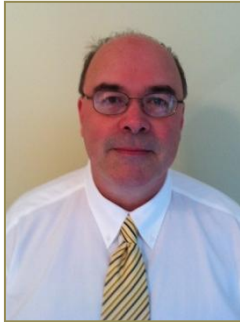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Mr Richard C. Staehle

친애하는 임직원 분들께,

제가 처음 이달우회장님과 이태영 사장님을 만난 것은 (옛) Research-Cottrell 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몇 십 년이 지난 후 다시 첫 미팅에서 만났을 때 KC비즈니스 영역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광스럽게도 저는 Lodge Cottrell Inc 의 새로운 CEO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는 세계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위하여 기여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가족 그리고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한한 영광과 자랑스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깊은 뿌리와 강한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KC는 고객에 대한 봉사를 하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이미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우리의 목표는 LCI가 KCGH 가족의 많은 강한 가지 중의 하나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LCI 직원들이 그 동안 전 세계에 있는 KC가족들에게 받은 많은 지원들을 알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CI의 목표는 KC가족들의 기술과 역량 그리고 재능을 지렛대 삼아 미국 최고의 대기오염방지회사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LCI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표하여 KCGH와 네트워크사 여러분들과 지속적이고 강한 유대관계를 바라며 모든 일에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C. ("Rich") Staehle
President & CEO
Lodge Cottrell, Inc.

원문

Dear Colleagues,

I first met Chairman Lee and President & CEO T.Y. Lee many years ago, at first when I was first employed at the (old) Research-Cottrell. In the decades since that first meeting I have watched the robust growth of the KC business. Recently, and following my later times at Environmental Elements Corporation, Babcock & Wilcox and Marsulex, I was both humbled and honored to recently become the new President and CEO of Lodge Cottrell, Inc. (LCI).

This is an exciting time for all of us. Our products and services fill an important need in the global development, as we provide our customers the means to operate profitably while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we and our families and friends all live in. We all work in an honorable profession, for which we should all be very proud.

A healthy tree should have both deep roots and strong branches. With the long history of KC's record in serving its customers, we have the deep roots already. Our goal here in the U.S. is to make sure that LCI will grow into one of the many strong branches of the KCGH family of companies.

I already know of the good support that LCI people have been given over the years by our colleagues all over the world, for which we all thank you. The goal for LCI is to leverage our collective family's technologies, capabilities and human talent as we significantly grow LCI into the best air pollution control company in the Americas.

Speaking on behalf of all the LCI people in the U.S., we look forward to a continued strong working relationship with all KCGH companies, mutual success and much happiness to all going forward.

Sincerely,

Richard C. ("Rich") Staehle
President & CEO
Lodge Cottrell, Inc.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환경서비스 Division]
제2회 KC환경서비스 관계사 체육대회

푸르른 가을하늘!

바람은 세계 불었지만 설레는 마음을 갖고 KC환경서비스 Division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30일 전라남도 구례군 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KC환경서비스 Division 체육대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지난 제1회 행사에 비하여 2개 관계사(KC호남환경과 NWL퍼시픽)와 여러 협력업체들이 더 참여 하였고, 참여 인원은 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NWL퍼시픽은 환경서비스 관계사는 아니지만, 조직규모가 비슷하여 guest로서 참가하였고, KC호남환경은 올해 새로이 KC환경서비스 계열에 편입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분들이 참여하여 더욱더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날 고재영 사장님은 개회사를 통하여 경기의 우승보다는 각 조직의 단결과 관계사들끼리의 상호 신뢰 및 협력에 중점을 두고 대회에 임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족구, 발야구, 2인삼각계주, 연령별계주 총 5가지 종목과 OX퀴즈, 행운권 추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축구는 KC환경서비스, 족구는 NWL퍼시픽, 발야구는 KC한미산업, 2인삼각은 KC환경서비스, 연령별계주는 NWL퍼시픽이 각각 우승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었고, 모든 경기에서 부상자 발생시 물수패 등의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원들 또한 나이를 잊으시고 젊은 직원들 못지 않게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이제 환경서비스 관계사 체육대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서비스 관계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KC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협조해주신 관계사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 대회 주최사로서 사소한 것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KC환경서비스 이재영 대표이사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KC환경서비스 관리팀 이정식 팀장
(jslee@kc-enviro.com)

▶체육대회 현장사진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안성유리]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서 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주관으로 2011년 9월 20일(화) 14시에 당사 교육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인증서 수여 후 김정완 사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18001)의 안전.보건에 대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고,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주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주중대 원장님도 축사를 통해 “아마존의 별목 이동방법을 예를 들며 king Pin*역할을 모든 작업자 들이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이 끝나고 공장동 앞으로 이동하여 현판식 거행 후 행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임직원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주중대 원장님, 이용희 산업안전팀장님, 김윤선 과장님, KC Cottrell 전풍림 감사님과 김인찬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유리 무재해 좋아! 좋아! 좋아!



king Pin* 이란

별목한 통나무들을 강물에 띄워 하류로 이동시키다 보면 나무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굽이치는 곳에서 엉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무들을 엉키게 만든 원인이 되는 나무를 '킹핀(King Pin)'이라고도 부릅니다.

엉킨 나무들의 문제 해결방법은 킹핀이 되는 나무를 찾아 가볍게 손을 대주면 순조롭게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High 5!
결과보고 및 포상 실시

지난 1년간의 High 5! 결과보고

안성유리는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큐스(McQs)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High5'프로젝트 결과보고를 9월6일(화) 하였습니다.

이날 결과보고에는 Unit별 우수 아이디어 발표와 더불어 포상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안성유리가 실시한 High 5는 수익성 향상, Clean 사업장 구축, 조직문화 개선 및 인재육성의 3가지 큰 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성과보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며, 승인위원회를 거쳐 채택된 개선 아이디어 131건 중 108건이 실행되었고 성과금액은 10.9억원이나 되었습니다.

Clean 사업장 구축을 위해서는 AWO(Action Work-out)활동을 추진하였는데, Leader를 중심으로 10명이 1박2일간 총 18회 실시하면서 협동심과 팀워크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이 청결해지면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예방되어 무재해 4배수 달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과포상



AWO활동



Tracking 회의 및 개인별 발표



야간산행 실시

매주 월요일 Tracking 회의를 실시하면서 독후감 발표와 Seri-CEO 동영상 시청 후 소감을 발표함으로써 자신감과 표현력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인재육성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건강증진을 위해 매월 2회 실시한 야간산행 프로그램이 안성유리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 되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아이디어 ! 멈추지 않는 High5 !!!

앞으로 계속되는 High5 운동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수익성도 향상시키고 더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멋진 회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안성유리 전사원 모두 !!!

"생각하라, 뒤집어라, High 5 짹짹"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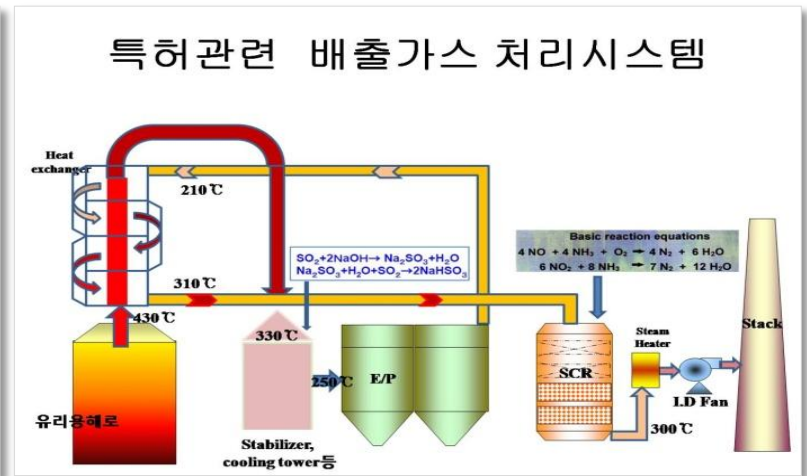
[안성유리]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특허 취득

1. 출원인 : 안성유리공업(주)
2. 발명자 : 김정완 대표이사 외 2명
3. 특허취득일: 2011.9.26
4. 출원번호 : 10-2010-0048404
5. 발명의 명칭 :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배출가스 탈질장치 승온시스템 및 이를 적용한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특 허 내 용 : 유리 용해로에서 발생된 배기가스는 전기집진기와 SCR을 통과하면서 분진과 NOx를 대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집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50℃ 고온의 배출가스에 가성소다를 분사하여 입구 온도를 250℃로 떨어뜨려야 하고 이에 따라 집진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온도는 210℃까지 떨어지는데, SCR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300℃까지 승온시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LNG 보일러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금번 기술은 용해로에서 나오는 고온 배출가스의 폐열을 열 교환기를 통하여 집진기에서 나오는 저온 배출가스 승온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유리는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이선영상무 기술경영사 자격취득



기술연구소상무 이선영

안성유리공업㈜ 이선영 상무님께서 사단법인 한국기술사업화 진흥협회에서 실시한 기술경영사 자격에 검정 합격(8월 23일)하셨습니다.

기술경영사란 R&BD관리, 특허,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을 취득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고

기술의 이전, 거래, 컨설팅, 창업지원 등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 과정을 운영,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기술경영사 자격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안성유리공업㈜ 기술연구소 배정한차장
(jhbae@asglass.co.kr)

[KC코트렐] 2011 10 01 인사 발령

임원 인사

- ① 기술연구소 담당 임원: 임창호 상무 (제철사업부장 보좌역 겸직)
- ② KCMS 사업부장: 이기환 상무

팀장 인사

- ① 제철사업부 기술팀장: 마준PM
- ② 해외사업부 기술팀장: 전형일PM
- ③ 해외사업부 기술지원팀장: 안세홍 팀장

법인장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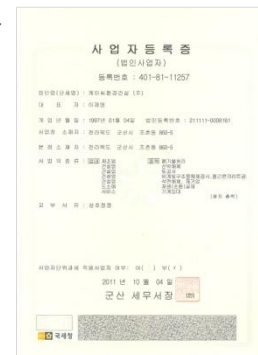
- ① KC Taiwan: 최희규 선임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과장
(soojeong@kcgreenholdings.com)

[KC환경건설] 사명변경

KC정림환경이 2011년 10월 4일부터 KC환경건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KC환경건설(주)의 면허업종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 운반처리업, 사업장 생활계.시설계 수집운반업(환경분야) 및 토공, 철콘, 비계, 구조물 해체, 미장.방수.조적공사업(건설분야)으로써 1등 환경건설 기업으로써 새롭게 출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C환경건설 김유화
(yuhwa@kc-enviro.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발전민수 소식]

한전기술, 1000억 규모 터키 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한국전력기술이 SK건설과 1007억원 규모의 터키 투판벨리 석탄화력발전소 패키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전력기술은 해당 발전소 건설에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석탄취급설비 등 기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터키 투판벨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수도 앙카라로부터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투판벨리 지역 광산지대에 150MW급 석탄화력발전소 3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4월 한국전력기술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SK건설과 설계용역계약(186억원)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한국전력기술이 지난 2009년 설계, 구매, 건설 일괄서비스를 수행하는 EPC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이후 첫 대형 구매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기술, 1000억원 규모 해외공급계약 체결

한국전력기술(KEPCO E&C, 사장 안승규)이 19일 SK건설과 ‘터키 투판벨리(Tufanbeyli) 석탄화력발전소 패키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기술은 해당 발전소 건설에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석탄취급설비 등 기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총 계약금액은 1007억원이다.

특히 한전기술이 지난 2009년 설계, 구매, 건설 일괄서비스를 수행하는 EPC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이후 첫 대형 구매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를 주로 수행해 온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인 한전기술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구매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그 동안 해외 EPC사업 수주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사업 수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터키 투판벨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수도 앙카라로부터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투판벨리 지역 광산지대에 150MW급 석탄화력발전소 3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4월 한전기술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SK건설과 설계용역계약(186억원)을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파워, 인천복합 5,6호기 준공 총 1200MW급...수도권 전력 16.1% 공급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일조하게 될 포스코파워의 인천복합화력 5,6호기가 본격적인 전력생산에 돌입했다.

포스코파워(사장 조성식)는 인천복합화력 5,6호기(60만kW×2기)의 건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5일 사장을 비롯한 이정식 포스코 상무와 유광재 포스코 건설 부사장, 황영식 벽산엔지니어링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인천복합화력 5,6호기는 가스터빈에서 1차 전기를 생산하고 배열을 회수, 스팀터빈으로부터 2차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시스템으로 기력발전보다 50% 이상 효율이 높고, 청정연료인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게 특징.

포스코파워는 이 발전소 준공과 함께 기존의 인천복합화력 1~4호기까지 포함해 총 300만kW급 발전설비용량을 갖춰 수도권의 16.1%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돼 국내 최대 민간발전사업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조성식 사장은 “이 건설 프로젝트는 2년이 넘는 건설기간 중 연 70만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기금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포스코파워는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World Best Green Energy Company’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에너지타임즈(9/5)

[제철소식]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동반성장지원단 활동현장을 가다 - KC코트렐] 해외 파견·영업정보 관리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도와

청정 석탄에너지사업(SNG 프로젝트) 저가의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CO+H₂)한 후, 이를 정제해 합성천연가스·합성석유·전력 등을 생산하는 청정 석탄(clean coal) 연료화사업. (합성천연가스 연 50만 톤 생산 계획, 2013년 12월 플랜트 준공)

지난 8월 29일 KC코트렐(대표이사 이태영) 연구개발 인력 60여 명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TRIZ' 교육을 받았다. 한국TRIZ학회장(김세현 상무)과 아시아 최초 TRIZ 마스터(강영주 Sr. 매니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KC코트렐은 서울 주재 연구개발 인력 전원이 참석,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주었다.

지난 4월부터 생산성연구센터 김세현 상무와 신성장사업실 장인화 상무가 지원하기 시작한 KC코트렐은 1973년 대기환경 플랜트 전문기업으로 설립됐다. 포스코와의 인연은 1983년 포항제철소에 소결 공정용 전기집진설비를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그 뒤 2006년에는 포스코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될 만큼 실력 있는 한국 환경산업의 대표기업이 된 KC코트렐은 대기환경설비, 환경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대기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독자기술 확보로 영국·미국·베트남·인도 등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서비스 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비롯해 소각, 매립 및 폐플라스틱 연료화 사업 등에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은 현장개선 및 QSS 활동에서 한 걸음 나아가 KC코트렐이 글로벌 환경기업들 가운데 선두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동반성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KC코트렐은 해외 영업활동 및 설치 현장 증가로 다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게 되면서 '해외 파견자 처우개선 제도화'에 관한 지도와 과거 실패사례 및 주요 영업정보를 관리하는 '지식경영시스템(KMS)'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포스코 전문가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가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청정 석탄 에너지사업(SNG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아이템(에어 쿨 열교환기·석탄수송설비·압력용기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공급을 위해 KC코트렐을 파트너사로 선정,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관점에서의 동반성장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면한 과제의 업무 방향을 재정립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타 기업과 다른 프로그램 구성으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요 사업에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돼 연구개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을 보유했을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을 얻었습니다. 동반성장지원활동에 대해 포스코에 보다 좋은 기술로 보답하는 것이 KC코트렐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겠습니다."

KC코트렐 이태영 대표이사가 전하는 감사의 말이다.

포스코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공식적인 동반성장활동이 끝나더라도 KC코트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TRIZ 교육 지원활동 및 SNG 프로젝트의 동반성장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KC코트렐에 대한 동반성장지원활동이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방침이다

▷ 포스코신문(10/6, 제888호)

[SNNC, 니켈 제련 증강사업 본격 '드라이브']

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시와 투자 협약 2014년 2기 제련설비 준공 예정

페로니켈 생산업체인 SNNC(대표 이상홍)는 19일 생산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시와 니켈 제련 능력증강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SNNC 협약은 지난달 체결됐던 포스코와 니켈제련사업 파트너사인 SMSP사와의 협약 결정(SNNC 능력증강사업, 연간 니켈생산능력 3만톤에서 5만4,000톤으로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투자협약식에서 전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시가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특히 SNNC는 광양 포스코터미널 CTS 내 약 16만㎡ 부지에 용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 2기 제련설비를 증강할 예정이다.

이날 SNNC 이상홍 사장은 "SNNC가 페로니켈공장을 성공리에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광양시, 지역민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회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NC 능력증강사업은 4,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고용효과는 약 34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광석 확보능력도 함께 증가시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투자 협약식에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최종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용 광양시장, 이상홍 SNNC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행사에 앞서서는 'SNNC 능력증강사업 Kick-off'행사가 생산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SNNC는 2006년 5월 포스코와 SMSP사(뉴칼레도니아 소재)가 각각 49%, 51%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의 니켈생산 회사다.

▷ 한국 철강 신문(9/21, 제1679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10월 달러/원, 1,140원 ~ 1,230원, 엔/원, 1,460원~1,600원, 유로/원 1,540원~1,630원



<출처:외환은행 홈페이지>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6개월)

9월 환율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의 전면 부각,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증등 국내외 신용지표들의 악화와 외국인 자금유출, 외국인의 원화 롱포지션 정리 등이 집중되며 전월 말 대비 150원 가량 상승하며 주요 저항선인 1,150원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시현하였으나, 당국의 강력한 매도개입으로 1,200원 돌파는 무산.

엔/원 환율은 월초 1,370원 대까지 저점을 낮추기 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속에 엔화 강세, 원화 약세가 뚜렷해지며 1,560원 대로 상승.

유로/원 환율은 유로존 재정 리스크 부각으로 150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원화도 이 흐름에 편승함에 따라 1600원대 터치함.

10월 달러/원 환율은 10월 중 포진된 굵직한 유로존 관련 이벤트(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원 결정 및 2차 구제금융 합의안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승인 절차와 민간 투자자의 참여율 결과 발표, G20 재무장관회의 등)들이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리스크의 상승 및 선진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미달러 상승 흐름을 지지하고, 외국인의 원화 매수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시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인 포지션의 특성상 환율 추세 변화시에 달러수요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외국인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재료가 나올 경우 당국의 개입이 가세하면서 일방적 환율 상승보다는 높아진 거래범위 내에서 급등락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원 환율은 현재 대외환경이 리먼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으나, 리먼 때와 같은 신용악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합리적 환율 상단은 1,250~1,300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제 달러/원은 1,090~1,100 원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된 가운데 1,100~1,250원의 넓은 범위 내에서 대외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장세가 예상되므로 외환포지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중 달러/원 환율은 과매수권에 접어든 기술적 지표를 반영해 1,140~1,230원의 거래범위를 예상한다.

<여기서 잠깐!!>

9월 환율은 그리스의 디폴트설과 S&P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뉴스 등 유로존 재정 리스크의 부각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달러/원은 주요저항선인 1,15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탄력을 받았으나 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하여 1,200원선의 돌파는 무산되었다.

이것은 1,050원~1,100원의 거래범위를 전망한 예상과는 달리 150원이 변동하는 큰 변동성의 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그리스의 조기 디폴트설 및 스페인,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뉴스 등 유로존 재정 리스크의 부각과 이로 인한 유로존 은행들의 부도 가능성에 더하여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지표 악화, FOMC의 정책 방안에 대한 실망감 등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더불림 우려로 이어지며 변동폭이 확대된 경우라 하겠다.

출처: 삼성증권 10월 금리환율 전망 2011.10.04

KC 그린홀딩스 재경팀 이강호 (kangho@kc-cottrell.com)

[환율전망]**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매달 환율게시판에 올리는 연간 환율전망을 뉴스레터 추가기사로 게재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부터 앞으로의 환율예측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Nomura Bank International, Standard Chartered, USB,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등 에서 전망한 예측치를 기초로 당사가 수주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P.O발급시점) 적용할 환율이며, KC그린홀딩스 재경팀에서 선물환(HEDGE) 계약 시 참고하는 환율입니다.

통화구분	예측기간	TTS(수입시-구매)	TTB(수출시-영업)
USD	2011.3분기	1135.29 /달러	1113.29 /달러
	2011.4분기	1103.71 /달러	1081.71 /달러
	2012.1분기	1078.81 /달러	1056.81 /달러
	2012.2분기	1063.15 /달러	1041.15 /달러
EUR	2011.3분기	1539.55 /유로	1507.55 /유로
	2011.4분기	1514.39 /유로	1482.39 /유로
	2012.1분기	1511.77 /유로	1479.77 /유로
	2012.2분기	1498.67 /유로	1466.67 /유로
JPY	2011.3분기	1513.55 /100엔	1491.55 /100엔
	2011.4분기	1459.47 /100엔	1437.47 /100엔
	2012.1분기	1419.17 /100엔	1397.17 /100엔
	2012.2분기	1377.44 /100엔	1355.44 /100엔

추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제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10.07 최초 매매기준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USD 1,086.60/달러

EUR 1,593.13/유로

JPY 1,548.08/100엔

[원자재 시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열연] 10월 열연 유통시장 혼풍 부나?

열연3사, 10월부터 HR價 할인 축소

[KMJ NEWS 09월30일]

포스코가 유통판매용 하이밀재 열연강판의 가격할인을 축소를 결정함에 따라 10월부터 열연강판 유통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환율 급등과 시황 개선의 분위기 등을 감안해 10월 주문투입분부터 자사 소속 유통업체에 하이밀재 열연강판 판매가격 할인을 톤당 2만원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이 주도한 유통 판매가격 인상 대열에 포스코도 합류하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동부제철은 10월 판매가격 할인을 추가로 3만원 축소키로 하고 3개월 연속 할인을 줄여 출하 가격을 인상했으며, 현대제철은 9월 5만원의 가격할인 축소가 사실상 무위에 그쳤으나 10월에 재차 5만원 축소를 결정했다. 현재 열연 유통시장은 현대제철 물량이 가장 많아 판매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포스코의 시장 위상 등으로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번 포스코의 결정으로 10월부터 유통가격의 상승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3사의 할인 축소로 유통판매 가격이 실질적인 인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침체돼 있던 열연 유통시장에 상당한 자극이 될 전망이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존 물량에 대한 류산스 결제여건 상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유통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중소형 실수요 업체들과 2,3차 유통업체들의 구매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격의 키를 쥐고 있던 포스코가 움직임으로써 수요업체에서도 구매 재개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밀재 외에도 고로재 가격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향후 구매심리가 급격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냉연] 냉연업체 할인축소 시행 "사실상 어렵다"

할인축소 시 업계 파장 클 것

[KMJ NEWS 09월30일]

최근 냉연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 할인폭 축소를 시행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연제조업체들은 냉연-아연도금판재류 원자재인 열연 구입비용 증가, 수익 목표 달성 등으로 제품 가격 할인을 축소해야 하지만 유통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큰 폭의 할인을 적용했던 열연업체와 달리 냉연업체의 할인율은 그간 평균 3%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큰 곤욕을 겪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냉연업체에서는 오는 10월부터 계절적 요인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상대적인 증가로 호황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소폭의 축소는 할 수 있을지언정 폐지는 불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할인폭 확대를 거세게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축소를 단행하면 파장은 클 것이다. 지금도 너무 어렵다"고 전했다.

[STS] STS CR 유통價, 열연과 동일 수준

경쟁심화돼 가격 하락폭 커...니켈價 약세기조 이어져 부담

[KMJ NEWS 10월05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유통가격이 열연강판과 동일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테인리스 열연 및 냉연강판의 유통가격은 톤당 3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톤당 5~10만원 정도는 유지되던 스테인리스 열연 및 냉연강판간 가격 차이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파고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반응이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생산 및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수요업체들은 경기 불안을 이유로 더 구매량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수요처라 할 수 있는 건설 관련 수요 부진과 제조업체들의 생산 확대가 지속되면서 유통재고를 확대시켰고 이는 다시 판매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통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혀 판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매 가격을 낮춘다고 더 판매가 이뤄질만한 시장 여건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LME 니켈 가격이 톤당 1만8,000달러대의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균 톤당 1만8,000달러 수준일 때 포스코산 스테인리스 공장도 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 역시 수요업체들의 구매 의지를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및 플랜트 등 꾸준한 수요가 지속되는 수요산업이 있다며 지나친 불안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니켈 가격의 약세와 이에 따른 스테인리스 가격 하락 가능성이 결국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당분간 미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형강] 가격 인상에 기대

수입가격 높고, 중국 가격은 내리고

[KMJ NEWS 09월06일]

10월 들어 형강 유통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격 인상으로 모이고 있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9월 말부터 제강사가 출하 물량을 조절하면서 10월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형강 가격 인상은 철근과 마찬가지로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기로 제강사의 입장과 지지부진한 가격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형강 시장 분위기에서 연유한다. 특히, 수입 형강 주문(Offer)가격 상승과 최근의 환율 급등으로 수입 형강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도 10월 형강 가격 인상 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수입 H형강 가격이 톤당 2~3만원가량 올랐다"면서 "수입업체 입장으로는 수입 주문가격이 너무 높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시황 부진으로 최근 H형강과 철근을 비롯한 봉형강 제품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수입 H형강 가격도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내 형강 수입업체들은 높은 환율과 수입 주문가격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은행 고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9월 22일에는 1,193.00원으로 1,200원대에 근접하며 올해 최고점을 찍었고, 원/엔 환율 역시 9월 22일 1,561.52원으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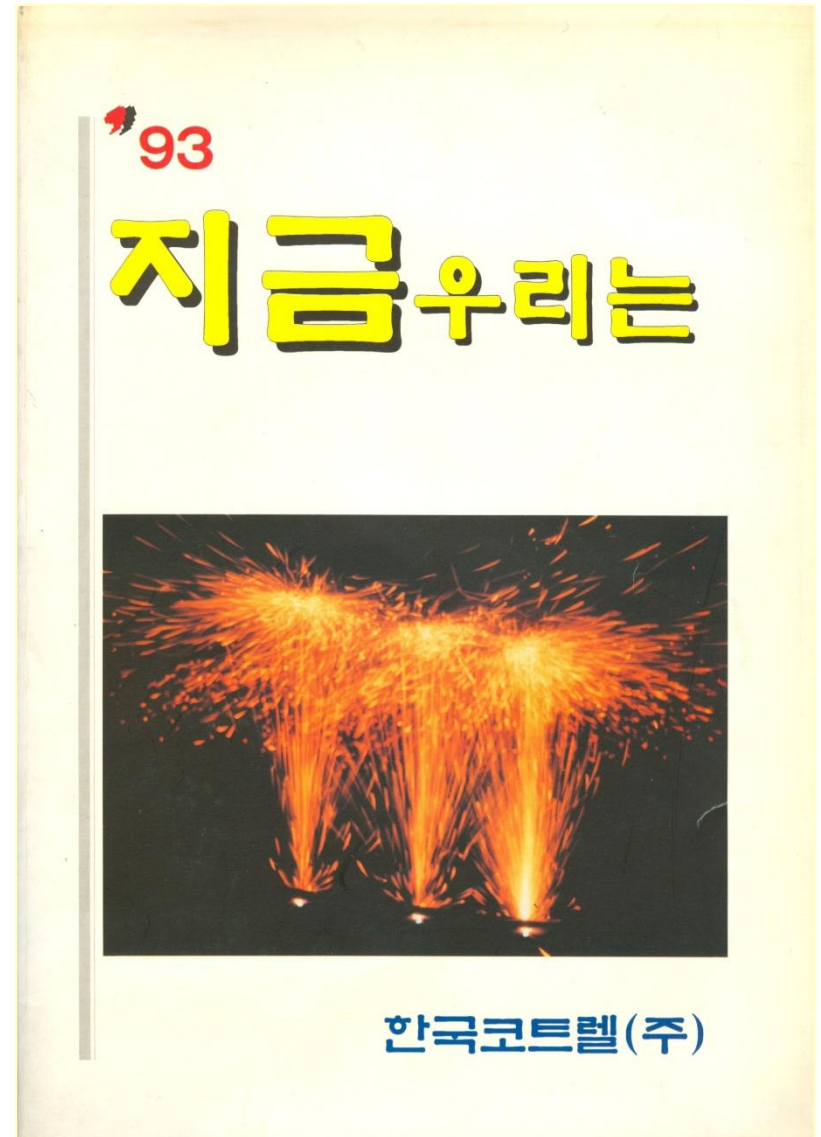
기획특집

[그 때 그 시절 사보연재-두번째]
93' 지금, 우리는

세계는 겉표전으로 몸살을 앓고, 국내에서는 97년 IMF
외환위기의 문 앞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하던 시절...
정치계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대통령 후보들이 득세하며
민주화 과정의 종착역에 들어서며, 한국 최초의 소형 실험위
성인 '우리별1호'가 발사됐고, 김계리엔 신승훈, 김건모
등 발라드 황제들, 노사연의 '만남', 김수희의 '애
모', 김정수의 '당신' 등 국민가요들이 흘러나오고, 극
장가엔 '장군의 아들, 쉬리'가 흥행을 하고 있던
1990년대!

KC코트렐에서도 사보제작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지금부터
4회에 걸쳐 “그 때 그 시절, KC코트렐 사보”를 연재하
여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 1993년 발간된 인쇄물 형식의
KC코트렐 사보 겉표지



코트렐 이 모 저 모



◁◁ 한마음 수련회

지난 92년 10월 24일 1박2일간으로 한마음 수련회가 있었다.

적극적인 사고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인으로서의 교양과 예절을 배우는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타, 산악훈련과 체육대회로 전직원의 심신을 단련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

Test Tower 설치 ▷▷

급년 11월 완공된 TEST TOWER는 집진설비의 효율화를 위한

- 1) 유동장 해석,
- 2) 전기장 해석,
- 3) 추타 강도 해석,
- 4) Ash 특성분석

을 위하여 설치 되었다
이 TEST TOWER는 높이 70M, 폭 6M,
길이 12M, 의 설비이다

◁◁환경대상 수상기념
"자연보호 활동 및 등반대회" 실시

93년 6월 12일 환경대상 수상기념으로 자연보호 활동 및 등반대회가 북한산에서 있었다. 도선사에서 시작하여 정상인 북한산장까지의 코스를 밟은 이 행사에는 전직원이 참여하였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코트렐 이 모 저 모



◁◁ 공장 VS

본사 축구대회

93년 8월 28일 공장과 본사 직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심신단련을 위한 축구대회가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모두가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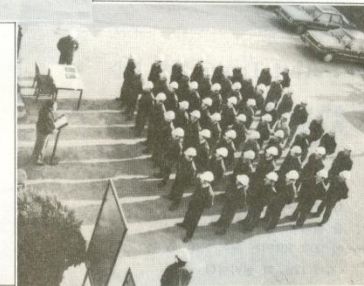
무재해 운동 ▷▷

92년 11월 2일부터 시작한 무재해 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으로 기간은 생산라인별로 310일, 관리직은 400일로 지정되어 실시되고 있고, 무사고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도 그들은 외친다.

"한국코트렐 - 무재해로 가자"

** 좋아! 좋아! 좋아! **



◁창립 20주년 행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공장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업체의 감사패 수여와 장기근속자 포상 및 모범사원 표창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행사후 부패식(통폐지)이 가장 좋았다

코트렐 이모저모



◁ 공채 4기 입사

1992년 11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를 낸 결과 수천에 달하는 인원의 서류전형 원서가 접수되어 그중 수백만이 1.2차 면접을 통해 93년 1월 5일자로 아래의 공채4기 신입 및 경력 사원이 입사하게 되었다.

이태준 / 안세홍 / 박준식 / 우종호 / 강해성 / 원종웅 / 최용수 / 최은진 / 최용석 /

▽▽▽▽▽ 사옥신축 기공식 ▽▽▽▽▽

韓國코트렐(주)이 창립 된지도 올해로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임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동빌딩에서, 우리의 숙원인 한국코트렐(주)의 사옥을 갖게 되어 93년 12월 9일 내의 귀빈들을 모시고 사옥신축 기공식을 하였다.

사옥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 및 차 후의 일정을 살펴보면,

"92년 3월 ~ 92년 12월 : 토지매입 완료

93년 8월 ~ 93년 11월 : 토목 및 건축설계 완료

93년 11월 22일 : 건설업체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93년 12월 9일 : 사옥신축 기공식
94년 4월 : 기초 기반 및 토목공사 완료

95년 2월 : 사옥 준공

95년 3월 이후 : 신사옥 입주"

등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사옥이 준공되어 신 사옥으로 입주하는 날 우리모두 축하를 들면서 외쳐 봅시다.

"韓國코트렐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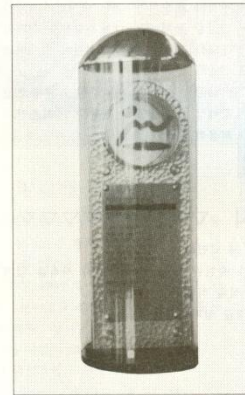
영원히 빛나라"

△△△△△△△△△△

지금 우리는 7

화제의 날

환경 과학 기술 대상



올해 도 코트렐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6월 3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 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에서 환경과학기술대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환경일꾼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기 위해 환경처와 조선일보가 제정한 환경대상은 2월 18일 후보자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총 2백 97건을 응모받아 4단계를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

우선 예비심사를 통해 45건이 추려지고, 다음으로 조선일보측 5명과 환경처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예선심사위원회」가 1차 예선 통과작을 16건으로 압축했고, 이들 16건의 수상후보를 상대로 경발 현지실사가 실시됐다. 이 현지실사를 토대로 예선심사위원회는 11건의 본심 심사후보들을 확정했으며, 본심은 관련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본선 심사위원회에 의해 5월 17일 실시됐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5개 부문의 수상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대기오염 방지기술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과학 기술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공해방지시설을 생산하는 7백여개의 국내 환경산업체 중에서 4백여개가 대기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첨단기술이 성패를 가름하는 이 분야에서 코트렐은 기술연구소를 통해 각종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코트렐 기술연구소는 상공부가 지원하는 공기만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국형 산업을 전기집진기 개발을 비롯하여 도시쓰레기 소각로용 유해가스 처리설비, PLASMA를 이용한 탈황/탈질 동시 제거장치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코트렐이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코트렐 직원들의 합심단결과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환경기술이 국제경쟁력을 재편성하는 「그린라운드」 시대. 이번 환경대상수상이 한국코트렐이 국제환경산업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8 지금 우리는

지구 산책



중국출장을 다녀와서

업무부 차장 서동영

지
구
산
책

문화 대학명과 주은래 총리, 12억 인민과 "RED STAR OVER CHINA", 그리고 인력거와 인공위성 -그렇게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모순이 많은 나라.

"중국"

올해 두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다녀왔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는 중국의 몇개 도시를 둘러 200명 정도의 사람들과 40만 정도의 탐색전 같은 미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짧게 한 시 절 '도전과 성취'라는 틀에 박힌 사명감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해야 한다.

처음 출장은 KOTRA에서 주관한 한.중수교 일주년 기념 플랜트 심포지움 및 상담회라는 거창한 제목하에 이천부, 기술부장 그리고 대만의 ROGER LEE 그리고 나 네명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기 양양함으로 출발했던 듯하다. 일행중에는 마치 수주 몇 건이라도 해가치고 금의환양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는지 모른다.

최초에 북경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공장 방문에서 우리 일행은 어쩔지 선택 보이고, 비능률적인 일상을 만끽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제품을 우리에게 팔려고 애를 쓰는 순진함 같은 것이 컸는 것 같았다.

10만명의 공장에서 만명이 우리돈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어쨌든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건 분명히 우리의 기업의 논리는 아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순박한 석가장의 시골사람들과 와일드한 천진사람들을 거쳐 상해에 도달해서는 '한 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결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진정한 중국상인 상해인들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는 3만명 정도의 공장에서 3백명 정도의 사람이 3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다.

지구 산책



불일치와 모순이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가 도전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중국에 간다. 시장이 있고, 그래서 할일이 있음을 안 이상은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 우리의 집진기를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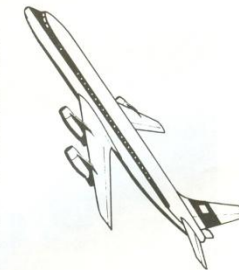
비행기로 두시간도 안되는 거리의 같은 나라내에서 어떻게 이런 불일치가 일어 날수 있는 것일까.

무엇의 이익을 설명했던 아담 스미스나 데이빗 리카르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이 문제만은 만만하지 않을 듯 싶다. 그렇게 코끼리의 꼬리털을 만지고는 우리는 중국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 회사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속 도전하리라 하고 각오를 다졌던 듯하다. 사실은 중국의 도전을 받고 왔지만,

사실 두번째 출장은 정말 시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무겁게 출발했다.

상해에서 심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되어 상해에서 초조한 기분으로 하루밤을 보내고 도착한 지역이 요령성.

두번째 출장은 회장님과 Mr. Carr 두분을 모시고 매연의 터널이라고 해야 할 요령성의 지역을 주로 다녀왔다. 그리고 정말로 반가웠던 요령성의 도시들. 난방용 석탄 보일러의 매연과 사업설비의 매연이 뒤섞여서 호흡이 곤란할 지경의 실양, 무순, 본계등의 도시를 돌때, 상대방이 불까봐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 소리쳤던 나의 패재 - 드디어 우리의 시장을 확인했다.



계속 갈 것이다. 적어도 천대의 집진기를 세우기 전에는 뒤 돌아 보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구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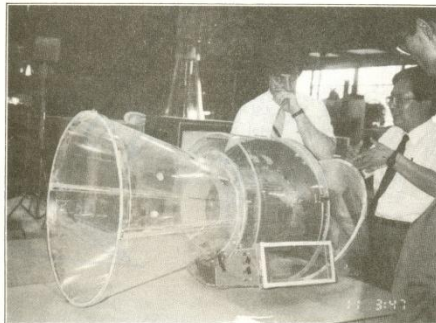
미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기술부 계장 오봉수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 함을 경축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함께 각오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85년에 인사 하차마자 전기집전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RESEARCH COTTRELL"이란 MAKER를 어렵게 알 수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견학 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왔으나 여건이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회사의 배려로 6월 6일부터 8일간 "TELLER SYSTEM TRAINING"을 목적으로 R/C를 연수자 방문하게 되었다.



12 지금 우리는

구성원들은 상세설계팀의 이하을 부장, 기술부 박기서 차장, 기술연구소의 고은봉 계장, 세분과 함께였다.

교육일정이 끝나면, 곧 바로 견적, 설계 및 시공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레이는 마음보다 책임감이 앞섰던 것 같다.

우선 박기서 차장으로부터 교육일정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출발 날짜가 임박하여, 현재 건설중인 PROJECT의 자료를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자료 STUDY에 전념하여야 했다.

출국 전날 연수팀은 회장님, 사장님께 출국인사를 드리는데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배우고 돌아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6월 6일 현충일 아침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한 항공기는 열네 시간의 긴 여행 끝에 뉴욕의 JOHN F. 케네디 공항에 정오쯤 도착할 수 있었다.

지구 산책

입국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한국인 남자가 행선지를 물어왔다. 일본의 안내로 숙소로 가면서 만하탄의 한국인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먹게 됐는데, 이곳은 마치 서울인양 착각 할 정도로 한국인 상기가 밀집한 곳이었다. 다시 한 시간여를 달려서 도착하여 R/C와 가까운 EVERGREEN이란 숙소 여장을 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MEETING과 출퇴근용 승용차 RENT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일 부터는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8시반 R/C 토비에 들어서자 WELCOME KOREA COTTRELL 이란 환영 POST가 첫 눈에 띄었을때 일행은 가슴 두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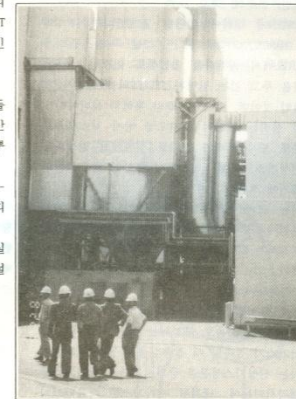
우선 이번 연수 일정을 CONTROL 할 H.DHARGALKAR(다갈카)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회사에도 여러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잠시후 강의실로 이용될 회의실에서, 5일간 실시될 TRAINING SESSION SCHEDULE에 대하여 설명 하였는데 간단히 소개한다면.

- 6월 7일 AM E.P APPLICATIONS
(H.DHARGALKAR, R.MASTROPIETRO)
PM RECENT DESIGN
MECHANICAL (B.PATEL)
ELECTRICAL (BOB)
STRUCTURAL (N.DIN)
- 6월 8일 AM PEP PROGRAM (N.DIN)
PM TELLER SYSTEM (T.TSUI)
- UNION COUNTY CASE
- 6월 9일 AM MONTGOMERY,
PA 현장견학. (T.TSUI)
PM TELLER SYSTEM (S.KOZNA)
ELECTRICAL/CONTROLS
- 6월 10일 UNION COUNTY 소각설비 현장견학

6월 11일 AM MEETING

PM GAS FLOW LABORATORY ESP/TELLER SYSTEM(R. RIEHL)기술연구소 방문으로 마감하게 되었는데, 지면을 통하여 교육 내용을 자세히 표현은 할수 없지만 08:40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 점심식사는 교육장소에



서 하면서 곧 바로 진행되는 이른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쁜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

교육방식은 강사의 강의 내용을 박 차장이 통역하시면서 이해되는 부분은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C.E PLATE의 PANEL증가우세, D.E PLATE에 HUCK BOLT 사용에, SUPPORT BUSHING의 CLEARANCE 변화우세, RECTIFIER TRANSFORMER의 PEAK VOLTAGE CONTROL 에의 변화우세.

지구 산책

DURA TRODE의 PROJECT별 적용, ANTI SWING SYSTEM등 새로이 변화하는 DESIGN이나 현재 DESIGN 되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PART 별로 이해의 폭의 차이는 있지만 짧지 않은 현장경험으로나 마 대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TELLER SYSTEM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면, R/C의 H.DHARGALKAR씨가 92년 12월 서울 플라자 HOTEL에서 세미나를 가진적도 있지만, R/C에 적용을 두고 있는 발명자 TELLER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이며, R/C-TELLER의 특허화 설비이다. 이 설비는 반전식 대기오염 방지 시스템으로 주로 도시 쓰레기 소각로 설비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 분진, 다이옥신/류판과 중금속등의 제거에 적용된다.

이는 크게 QUENCHING 반응조(건식 세정기)와 분진제거장치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분진제거장치는 E.P 또는 FABRIC FILTER가 이용된다. 배기 가스중 입자가 큰 분진을 유입구의 CYCLONE 작용으로 제거된 후, QUENCHING 반응조로 유입되는데 압축공기와 혼합되어 노즐을 통해 작은 방울로 분사되는 석회 슬러리와 배기가스가 접촉할 때 접촉반응을 통해 석회슬러리는 산성가스성분을 중화시키면서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데, 냉각된 배기가스는 다음단계의 건식 변유리에 유입된다.

건식변유리에는 TESISORB라는 결정질이 공기와 함께 주입되는데 변유리의 환상으로 된 입구에서 미세한 분진과 TESISORB가 격렬하게 충돌, 결국 더 큰입자로 응집하게 된다.

이 오염물질은 다음단계의 E.P 또는 FABRIC FILTER를 통하여 제거된다. 아울러, TELLER SYSTEM의 MASS-BALANCING에 있어서 QUENCHING 반응조의 화학양론비 (STOICHIOMETRY RATIO, S/R)는 대단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기로 한다.

TELLER SYSTEM에 대한 강의는 중국출생의 T.TSUI(티엔쓰이)씨가 보조설명은 J.KURUVILLA씨가 진행하였는데 주강의 내용은 MASS-BALANCING 설계 및 Q-PROGRAM에 관한 것이었다. ELECTRIC/CONTROL에 관한 강의는 S.KOZMA씨가 UNION COUNTY를 예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중요한 상호 INTERLOCK와 DCS 구성, 운용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진행되었다.

6월 8일 오전, 현재 운전중인 MONTGOMERY COUNTY의 견학을 하기위하여 R/C에서 한시간 가량 달려야 했는데, 도로변에 펼쳐지는 전원 주택들 서구적인 풍경은 외화를 보는 것과 같았으며, 맑은 공기와 푸른하늘의 초여름 날씨에 고국(?)의 시골 그 어느곳을 연상케 하였다. 모인 정문을 통과하여 방문자를 위해 만들어진 PROGRAM에 따라 이곳의 조각설비운용 상황들을 슬라이드를 보며 설명을 들은 뒤, 곧 현장견학에 들어갔다. 계속 드나드는 대형트럭은 도시 쓰레기를 이곳으로 운송하면 대형크레인으로는 계속하여 조각설비에 쓰레기를 공급한다. 참으로 거대한 쓰레기 운집장이었다. SYSTEM 전체를 구성시켜 공장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움직였는데, 미리 DRAWING STUDY및 교육을 통하여 어렵듯이 알게된 내용들이 현장견학을 하면서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 의심난 부분은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도 하고 MEMO도 하고 그렇게 거의 현장 견학이 끝나갈 무렵, 설비 TROUBLE를 이유로 강제로 철수하다 시피 하였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UNION COUNTY를 견학하였다. 이곳은 한창 건설중이었으므로 일행이 보고자 하는 SYSTEM의 전부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지구 산책

나의 경우는 기 설치된 CEM (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SYSTEM)과 REVERSE TYPE의 FABRIC FILTER, DCS (DISTRIBUTION CONTROL SYSTEM, TA COMPRESSOR) 및 계장물류등의 설비 파악에도 관심이 많았다.

교육 마지막날 오전에는 4일 동안의 교육 및 현장견학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K/C에서 요구한 자료를 받고, 주주 받아야 할 자료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질문사항을 묻는 등 시간의 구애를 많이 받았다.

교육일정을 마감하는 기술연구소 견학이 있었다.

R/C에서 20여분을 달려 도착한 기술연구소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하였다. MODEL TEST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봤던 R.RIEHL씨가 그곳에 있었다.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곳 연구소에서는 MODEL TEST용 아크릴 EP 및 QUENCHING REACTOR, FGD를 제작하고 TEST하여 최적의 MODEL을 TEST DATA와 함께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 회사에서 SUPPLY한 대만 HSINTA, TALIN 및 보령 T/P등의 MODEL EP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미 20여년전에 제작되었다는 EP SIMULATOR도 관심을 끌었다. MODEL TEST용으로 제작된 QUENCHING REACTOR에 대한 의문사항을 정리하고 R.RIEHL씨의 전송을 받으면서 일행은 R/C에 되돌아 오는것으로 교육일정을 마감하게 되었다.

교육일정이 다소 짧은 감은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도 이런기회가 다른 사원들도 주어진다면 회사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 자신도 이번 연수 교육을 다녀오면서, 마음의 각오를 새로이 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금번 기회를 부여해주신 회장님과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연수교육 관계자 여러분과 교육기간 내 음양으로 수고해주신 박기서 차장, 형님같이 돌봐주시던 이하운 부장, 고은봉 계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짧은 시간 동안 두서없이 써 내려온 부족한 성의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 다시한번, 창사 20주년을 경축하면서, 무한한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기술 논란

CAD! 그것이 알고싶다.

- 'AutoCAD R12'를 중심으로



기술부 이 태 준

CAD 개요

이 글을 읽기전에, 자신이 CAD에 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저도 보통을 넘지 못하는 보통의 CAD 사용자이니깐요. 요사이 웬만한 CAD 시스템이 없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CAD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예전에는 집채만한 컴퓨터에 엄청난가 고가인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컴퓨터의 두뇌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달로 최첨단 PC와 비교해 저렴한 CAD 소프트웨어만 갖추면 이전 에 집채만한 컴퓨터가 했던 일 이상의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CAD란 말 그대로 'Computer Aided Design' 또는 'Computer Aided Drafting'의 약자이다.

1) 키보드, 마우스, 디지털타이저, 터치스크린, 라이트펜 등 사용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념설계부터 상세설계까지의 설계과정에서 우리는 CAD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니, CAD만으로도 가능하다.

'개념설계'에서는 기존 CAD 도면의 정보나 심볼들을 조합 활용하거나 3차원 입체도면을 만들어 머리속에 있는 개념을 구체화 또는 형상화 시킬 수 있다. (기존 프로젝트의 도면이나 진행철을 참조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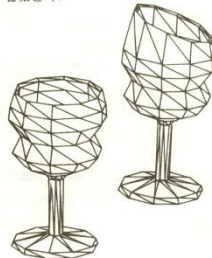
'기본설계'에서는 계산, 분석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각 요소의 집합체인 시스템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경계조건이나 간섭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등을 CHECK하기 위하여 CAD는 간단한 조작으로 각 요소를 이동, 삭제, 조합하면서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자의 정보를 CAD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 주변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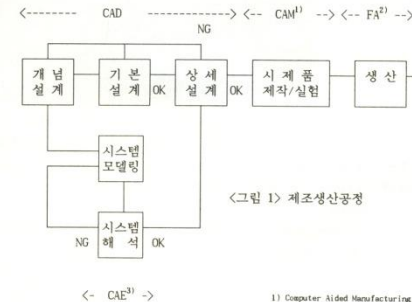
(E.P Layout DWG를 그려본 사람이라면 이 작업이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 일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상세설계'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도면화하는 단계로, 제도기와 연필 대신 CAD는 컴퓨터와 입력장치(마우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CAD는 분명 그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않고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CAD를 만들고 팔고 배우고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았는가?



기술 논란



<그림 1> 제조생산과정

<- CAE! ->

- 1)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 2) Factory Automation
- 3) Computer Aided Engineering

손으로 도면그리기 / CAD로 도면그리기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파아란 들만에 하얀 집과 이글거리는 태양이 들어있는 그림일 것이리라. 자, 우리도 이제부터 빈 종이위에 집과 태양을 그려보자.

먼저, 집을 그리려면 '선'을 그려야 한다. 수작업의 경우 자를 놓고 연필로 적당한 길이의 선을 그으면 된다. 이 과정은 3단계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자를 잡는다/거리를 잴다/선을 그린다.

반면 CAD작업의 경우, 'LINE'이라는 명령을 주고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된다

이 과정도 3단계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명령어/시작점/끝점을 입력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 몇개를 적절히 연결하면 집이 완성된다.

다음, 태양은 지붕위 적당한 위치에 '원'을 그려주면 된다. 수작업의 경우 템플렛(행랑)에 연필을 대고 적당한 지름의 원을 그리면 된다. (3단계: 템플렛을 놓는다/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린다/연필로 원을 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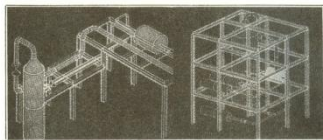
CAD작업의 경우 'CIRCLE'이라는 명령을 주고 '중심점'과 '지름' 또는 '반지름'을 입력하면 된다. (3단계: 명령어/중심점/(반)지름)

이렇게 수작업과 CAD작업의 Drawing 과정을 비교해볼때 속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CAD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경우 별다른 장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CAD의 강점은 기존도면을 편집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다.

기술 논단

CAD가 수작업 Drawing에 비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밀도'가 높다.

수작업의 경우 소수 첫째 자리 이상의 정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CAD는 소수 여섯 자리 이상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편집(Edit)'이 용하다.

현재 도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축소, 확대하거나 일부분을 지우고 복사(Copy)하고 옮기고 회전시킬 수 있다. 다른 CAD도면의 정보를 현재 도면에 삽입시킬 수 있고 그 반대의 작업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수많은 편집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작업은 단 몇초 안에 이루어진다.

셋째, '도면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CAD는 '파일(File)' 형태로 도면을 보관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릴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Line)', '원(Circle)', '호(Arc)'와 같은 도면구성 요소(Entity)에 대한 정보를 Database화 하여 저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면정보를 잘 활용하면 물체의 길이, 면적, 중량 등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BOM)이다.

넷째, '사실적 실물 표현'이 가능하다.

CAD는 2D(평면) 뿐만 아니라 3D(입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감과 알감을 가진, 실물과 매우 흡사한 모델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출력'이 가능하다.

2) 예컨대 한개의 '선'은 이름은 'Line'이고 시작점과 끝점의 X,Y,Z 좌표는 무엇이든 선의 형태와 색깔은 어떻게 몇번 층(Layer)에 놓여있나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3) BOM (Bill Of Material)을 작성할 경우, BOM 자동산출을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보다 매우 빠르고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

도면의 크기, 선두께와 형태, 색깔 등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미려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보관'면에서 유리하다.

CAD 도면은 전송한 바와 같이 파일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광디스크와 같은 대용량 저장매체를 사용한다면 수백장의 도면을 한 장의 디스크에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도 CAD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작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CAD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CAD'는 만능 탈렌트가 아니며 그러한 편견을 가져서도 안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일 뿐이다.



기술 논단

AutoCAD

CAD 소프트웨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단연 Autodesk사의 'AutoCAD'일 것이다.

AutoCAD는 기계, 건축, 조선, 항공 등 전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또는 엔지니어가 원하는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범용 CAD 소프트웨어로 현재 Release 12 Version까지 나와 있다. AutoCAD가 각광을 받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 개방형 구조
-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메뉴, 명령어 등 사용환경을 바꿀 수 있다.

▷ AutoLISP
- 'Basic'과 같이 배우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AutoLISP'을 자체내장하고 있어 도면을 편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키 하나만 누르면 도면 한장이 완성되게 할 수도 있다)

▷ AutoCAD Development System (ADS)
- 고급 프로그래밍언어인 컴파일러방식의 'C' 또는 'Basic'을 AutoCAD와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다.

▷ Advanced Modeling Extension (AME)
- 3D 모델링 (Wire & Solid Modeling)을 위한 편리한 기능을 갖춘 AME를 추가할 수 있다.

▷ AutoShade
- 물체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AutoShade & Rendering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수많은 사용자 그룹 및 응용프로그램
-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이 주변에 산재하며 각회사 실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다.

▷ 표준 파일형식 (File Format)
- CAE/CAD/CAM 관련 소프트웨어에 치고 AutoCAD의 데이터베이스 파일형식('DXF' File format)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정도로 AutoCAD는 호환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AutoCAD는 매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Version Up 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CAD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보인다.

CAD의 활용

현재 CAD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망(Networking)을

구축하여 각각의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통합은 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정보를 공유화함으로써, 기존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4) Networking의 유형은 대개 'Server/Client'의 형태를 갖는다. 즉, 한곳에 (Server) 모든 정보를 저장해 놓고 다수 사용자들이 (Client) 그것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한 도면관리 시스템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방대한 양의 도면중에서 원하는 도면을 손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설계가 변경된 도면의 자동갱신, 사용권한부여, 도면 Check 및 승인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CAD가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제도기(Drafter)'를 대신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한낱 값비싼 장식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말해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구성 및 우리회사 실정에 맞는 응용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구입) 없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다만 좀더 편하게 도면작업을 한다는 것 말고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지상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CAD를 활용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조금만 눈을 돌려 조금씩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CAD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한시간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수십분만에 해쳐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업무부하를 줄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단계에서는 'CAD'에게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CAD'를 '나'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호회 스케치

공장 축구회 스케치

생산관리 이정희

낙엽이 휘구는 계절도 지나고 따듯함을 차고 싶은 가을에 한걸음 다가서는 날에 "지금, 우리는" 사보에서 직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축구회 회원들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코트렐(주) 인천공장 축구회를 소개하자면 축구회는 발족 이전에 공장 자체의 씨름 활동이 전무하였으나, 직원들이 씨름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축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팀력을 다질 수 있고 많은 운동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면에서 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한 체력, 애사심의 향상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1993년 3월 13일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축구회의 조직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4명, 총무 1명, 주장 2명의 임원진 9명과 일반회원 22명으로 총인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심정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가 높고 회사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것에 힘입어 지난 8월



28일 토요일에 본사 직원과 공장 직원간에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인천 백운공원에서 친선경기를 개최하여 상호간에 친선을 다졌으며, 가을을 맞이하여 야외에서 모임을 갖음으로써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0월 31일 일요일에 공장장님 이하 축구회 전회원이 아우회를 가서 축구대회 및 각종 장기자랑 대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대내적으로 본사와 공장간에 순계, 주계 축구경기전을 개최하여 전직원의 단합된 힘을 보일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각종 축구 동우인과의 친선 경기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축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축구회 회원들의 사기 앙양 및 더 나아가서는 한국코트렐 주식회사의 이미지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추신) 더욱이 중요한것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여 세계 유수의 강호들과 격돌하여 한국코트렐 주식회사의 위상을 세계 단방에 떨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9

화제의 날



잊지못할 그순간

시상식 그것은 우리모두의 자랑이며 내일이다.

화합과 미래로

회장님과 사장님께서
시상의 기쁨을 나누며



***** 호주 무역 및 투자회의 참석 *****



11월 24일 호주 Mel Bourne에서
호주정부가 주최한 제1차
호주무역 및 투자회의에서...

왼쪽으로부터

Mr. Roger Walters -- 호주
전신 전화국
Mr. Su Van Cheung -- MM Cable사
김 정희 -- 삼성그룹 상무
이 달우 회장님

지금 우리는 9

행복찾기

오리지널 짚순이 혜진 엄마

자재부 최 구립

문집 이 좋은 사람이 힘 자랑을 할려고 손안에든 레몬을 힘껏 짜서 더 이상 즙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쥔다.

"나보다 훨씬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하였다.
그때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 레몬을 다시 짜니 레몬즙이 또 나오더라.
사람들이 하도 희한해서 그 사람한테 물었다.
"당신은 몸도 가냘픈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직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
"나는 세무서에서 근무 합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200만원!

이것은 내가 결혼시 가지고 있었던 돈의 전부다.
부모님도 나도 넉넉치 못한 살림때문에 도저히 어디서 돈 나올때가 없었던 까닭에.
회사에서 주택자금 융자 200만원. 그리고, 고마운 사람한테 빌린 100만원. 합계 500만원

이돈을 가지고 신혼 살림집을 구하기만 3년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더욱 힘들겠지만)
상당히 어려웠다.

어찌 어찌하여 들어 마추 앉아 있기도 힘든 집을 구하였다.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집 주인이 심할 정도로 까다로워서 습도 제대로 못될 정도였다.
다시 이사를 하였다.
반지하, 그곳은 전세금은 800만원 모자라는 300만원.

내 딸 혜진이 엄마 (나의 아내)
잠시 나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나온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편 original 짚순이가 나의 아내다.
나의 아내의 살림살이 신조는 * 일회용품은 절대 사용하지도 사지도 않는다. (물자남비/과소비)
나는 지금도 월급봉투를 그대로 집사람한테 준다.
그리고 그 돈의 용도에 대해서 무관심 하려 한다.
이리저리 조개고 모으는데는 집사람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차리 반지하로 이사할때도
나는 돈이 걱정되었는데, 혜진이 엄마는 어디서 생겼는지 "걱정없다"한다.
나중에 알았지만 내 월급의 2/3 이상은 무조건 적금을 들었다 한다.

나는 지금도 주금을 탄다. 주금 10000원. (지금은 인상되어 12000원)
나도 필요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다.

반지하에서 1년정도...

행복찾기

혜진이 엄마는 'APT에 신청서를 냈다'한다.
그날은 나한테 혜진이 엄마가 몹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거냐"고
지금의 24평 APT 에 당첨이 됐다. 또 다시 나는 돈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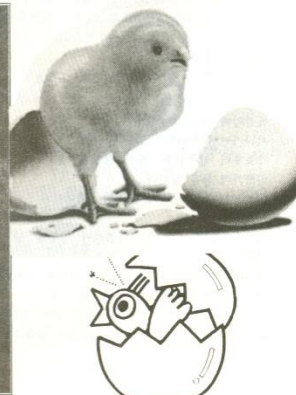
총 분양가 4천만원.

그때 내미는 혜진이 엄마의 돈의 내역서
현재 전세금 800만원, 적금 300만원 x 2, 회사에서 주택자금을 500만원
주택은행융자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100만원인데 월급+보너스로 O.K 해결가능.
이것이 내역의 전부다.

그러면서 하는말 '우리 3식구가 1달 생활비가 16만원인데 남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

1993년. 9월. 25일 입주

현재 나는 연수동에서 사랑스런 내 딸 혜진이.
그리고 진짜 이집의 주인 혜진이 엄마. 이렇게 3식구가 뽕으며, 쫓으며 베풀다 창녀며 작은
근린공원을 정한 삼아 오늘도 행복속에 묻혀있다.
지금까지 한뎀도 하여 주지 않은 말을 이번기회에 혜진이 엄마한테 해주고 싶다.
에이! 속스러워 이번에도 못하겠다.
그동안 읊으로 양으로 돌봐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행복찾기

신사랑 만들기

주연 : 이종영, 손정순
감독 : 김현대 사장님



제 1막 우리들의 첫 만남

92년 12월 13일
** HOTEL COFFEE SHOP.

팔랑! 팔랑!

사람을 찾는 표지판이 지나간 수초후, 열 TABLE에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닌가!? 아홉사! 동전뒀어 어둡다는 옛말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출장 명령을 받고 대만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의 머리속에는 온통 잘 엮여져야 할텐데.....

대만을 향해 비행기는 거침없이 창공을 날고 있었다.

대만에서의 바쁜 시간을 조개서 거금을 투자하여 전화기의 다이얼을 돌렸다. 푸-- 푸--.

지금에 와서 알았지만, 대만에서의 전화 한 통화가 결혼에 골인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수



있었나 보다.

장가 못한 (노)총각 여러분 순간의 분위가 조성이 여자를 사로잡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갈수 있습니다.

제2막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시간은 흘러서, 93년 5월 5일 00시 **HOTEL COFFEE SHOP.

또 하나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우리는 롯데 HOTEL COFFEE SHOP에서 모일 모일 모시에 만나기로 약속 했는데...

나는 읊조리며 위치한 롯데호텔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나타나질 않는 것이 아닌가!

전화기 BOX로 가서 고덕동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 잠실 롯데에서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황급히 끊고 부모님을 모

행복찾기

시고 잠실 롯데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다. 왜 이리도 길에 막히는지...
(우리는 이대목에서 직살나게 혼났다)

제 3막 결혼식 하던날

우여 곡절 끝에,
93년 10월 23일 ** 예약장

드디어 우리 둘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위한 시발점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벌써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의 HOTEL 방 (상상은 금물)

제 4막 신혼 여행

지금 부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장기간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글로 표현 하기는 그 려고... 한마디로 "삼삼"했다. 아한 내용 좀 풀려니가 사보운리 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개선 통보를 받았으므로, 취소하기로 하고, (본 내용은 사보운리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신혼 여행지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후보지가 떠올랐다. 태국, 캄.인도... 수많은 국외여행지를 물리치고,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택한 이유는 애국정신을 발휘 했다고나 할까!? (조금 어부성 발언인가?)

제주도에 대한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날들은 기사의 불친결에, 바가지니. 하고 떠돌아대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만을 만날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잠깐 광고>

신혼여행은 역시 한국의 명물인 제주도로 나의 WIFE는 여자치고는 별나게 산을 무척 좋아하는 탓에 마지막날 한라산을 등반하고 가져고 올라갔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좋다고 하루 더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한라산 등반하던 마지막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백록담에 올은 밀라 있었지만 제주에서 만나서 우리의 안전과 즐거운 여행을 위해 4박 5일 동안 안내했던 문상호 기사님은

전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사모님에게 김밥을 준비하게 하시어 같이 등반을 해주신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제 5막 신혼생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들은 살집이 없었다.

왜냐하면 대만과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잠시 고덕동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어느날 신부장님이 대만에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부장장님 환영회를 위해서 복창동에 처가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고 제의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부터 시작됐다. 경계장할? 고덕동의 처가집에서 하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은 집들이 겹해서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복창동에서 하고고 버티다가 결국은 고덕동에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다.

"공직사랑" 처음듣는 사람들이 오해할것 같아서(오해할 사람은 없겠지만) 설명하면 복창동의 처가집은 음식점 이름임을 밝혀 둥니다.

처가집에서 나는 거꾸러 메달려 직살나게 말바닥을 얻어 밟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울어야 할 WIFE가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바람에 더 많이 두들겨 밟았다.

(나중에 웃는 사연을 알고보니 밟다닥 밟는 것을 난생 처음 구경해서 신기 했단다...)

처가집에서 집들이를 하고 보니 재미도 있었지만 괴송스러웠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대만에서 본격적으로 할것을 약속드리며 신사랑만들기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지면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2탄은 관객의 호응도를 지켜보고 성공이면 대만 현지에서 녹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제 2탄 "신 사랑만들기"

행복찾기



정재선과 신호수의 옛이야기



편집실

12월 어느날, 겨울 날씨 답지 않게 포근하였다. 북적거리는 일호선 전철을 타고 부천역에 하차하여 삼익아파트 5동 1003호를 찾아 향했다. 전설처럼 되어 버린 그들의 옛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잠에서 바로 일어난 명호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던 신언니

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깨끗하고 잘 정돈된 실내에는 신언니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 있었다. 언니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주었고, 3식구를 비롯



한 우리들 3명이(경준/성희/해성)식탁에 둘러 앉아 저녁을 들었다.

거기에 걸들인 반주로 분위기를 맞추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8년전, 퇴근을 하는데 우연히 동행하게 되면서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시끌벅적한 정계장은 평소엔 좋아하고 즐거하던 탁구를 같이

과 신의가 찢었다고 한다. 그들이 결혼을 할 즈음, 사내는 물론 거래처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떠들썩했다. 유달리 대인관계가 좋았고, 항상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는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명시 철산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씩씩한 아들 명호와 단란한 가정 을 이루고있다.

* 우리의 *
하나 해 질 문 연
애시절 재미
있었던 때와
가장 로맨틱

하자며 첫 데이트 신청을 했고, 이렇듯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정계장에게 신언니는 믿음

했었던, 슬펐던 때를 물었다. '재미있었던 때는 탁구를 치

행복찾기

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고, 단골카페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을때, 로맨틱했던 때는, 정계장이 신언니를 업고 한강 다리를 건넌때, 슬펐던 때는, 신언니가 못먹는 술을 마시고는 운동장 한복판에서 투정부리며 때쓰는 아이처럼 울었을때 (그때 당시는 심각했음)' 라고 대답했다.

둘째 질문, 신언니에게 '화낼때 모르면 정계장이 정말로 화를 낸 적이 있었는가?' 물었다. '명호아빠는 정말로 화를 내지는 않는데,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자정이 넘어도 연락없이 늦게 들어오면, 집에서 기다리는 여인네의 마음이 어떠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것이 너무나 화가 나요.' 어떤 방법으로 화를 풀어주세요? '눈을 맞추며 히죽히죽 웃고는 '여보야, 다시는 안그렇게'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저는 화를 낼수가 없어요.' 순간 언니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돼지의 일주일 철학

월요일 : 월해 먹는다.
화요일 : 화곤하게 먹는다.
수요일 : 수없이 먹는다.

삼째 질문, 신언니에게 남편 사랑을 해달라 했다. 언니는 상당히 수줍어 하며 '우리 명호아빠는 연애시절 그랬어요. "분명 달콤한 프로포즈를 받은것은 아니지만, 내 평생 순간의 선택을 하는데 좌우했던 말한마디 '다른건 몰라도, 너에게 향한 나의 마음만은 변치 않으리라.'"

사째 질문, 선물 받은 것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선물을 많이 자주 해주는 편은 아니예요. 그러나 연애시절 본인의 사진을 담은 예쁜 팬던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멜로디도 나왔어요.' 하하하...



목요일 : 목 터져라 먹는다.
금요일 : 금곤하고 먹는다.
토요일 : 토하도록 먹는다.

마지막 다섯번째 질문, 새해 소망은? '우리 명호아빠 건강하고, 명호가 잘 커주는것.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예쁜 공주를 주시는 것이죠'

신언니의 새해 소망은 꼭 이루어 질것이다. 왜냐하면 진행중 이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이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며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 멀어졌다.

일요일 : 일어나지 못하도록 먹는다.

우리들 문화 - 일기

우리들 문화 - 일기

낮선곳에서의 하루....

총무부 차장 박승원

나의 가장 나쁜점은 있는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제 멋대로 해석하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그 버릇이 세상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위안하고 반성하려고 하지 않아서 좀체로 고쳐지지 않는다.

成田行 비행기가 올았을때 등뒤로 빠르게 얼굴들이 지나간다.

당분간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흔들며 떨어버리려고 해도 더욱 섣매해 진다.

비행기의 좁은 좌석과 日本人 Stewardess의 빗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일본에 대한 나의 先入觀을 계속 強調하고 있다. 한참만 자면 東京, 마치 비행기가 나의 낮잠자는 시간을 앞둔 제 시간에 출발한다.

눈을 떠 비행기 창 밖으로 졸다한 백사장을 가진 길다란 해안이 펼쳐지고 우리의 눈발 풍경이 지나간다. 멀리서 보아도 잘 정돈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눈들이 나를 감감하게 한다. 오후 네시 비행기가 조용히 내려 앉는다. 모두들 바쁜세상이라 아무도 마중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낮선 땅에 처음 내리자 약간 흥분되는 것을 느낀다. 풍경을 끝내고 City air terminal로 향하는 Bus를 타는 곳을 찾았다.

2,700원. 제바르게 끊하기 7.3을 한다. 잘 안되어서 8을 끊한다. 버스요금에 너무 비싸다. 무언가에 휩싸여 호텔예약도 못하고 하루밤 신세를 질 친구집을 찾아가는 길은 나의 계몽을 흔 한 만큼 그리 어렵지는 않다. 물론 근처에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3년 가까이 일본땅에서 산 친구의 피곤한 얼굴이 무겁게도 느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잘보지 못한 저녁 대접을 하는 그의 아내 얼굴과 내일 서울로 출장가는 것 때문에 조금은 들뜬듯한 느낌이 그의 피곤사이로 방안에 퍼진다.

동경의 첫 아침. 가방을 Hotel에 놓고 시내 지하철 안내도를 손에 꺼내두고 자신있게 전철역을 향한다.

西葛西 서울의 시흥쯤 되는 동네의 역인것 같은데, 출근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다.



56 지금 우리는

우리들 문화 - 일기

우리들 문화 -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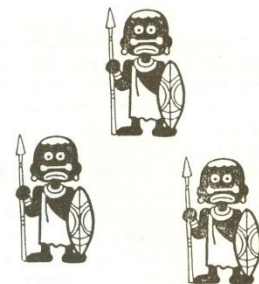
東京大學에 가보기로 한다. 다음날 약속이 있는 곳이 東京대학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라하니 미리 알아도 볼겸, 大手町역에서 갈아타고 本郷三丁目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Hotel Desk의 美女가 가르쳐 준 대로한다. 안내방송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전철内に 다음역이 글자로 나와서 나 같은 촌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약속 장소를 점검하고 짧은 일본어로 물어보았다. 東京대학이 어디나고? 그 사람의 말보다 손가락에 신경이 가는 것은 왜일까?

赤門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나를 부른다. 까마귀다. 내가 아는 까마귀는 까치보다 조금 큰 높인데 이놈은 날개를 펴니 내 발을 밟았만하고 앉아 있는것을 보니 턱 밑에 살집이 가득하다. 감색의 석주이끼런 벽과 언제 엮였는지 화제가 났을직한 검은 자욱들이 여기저기 건물에서 까마귀 소리를 낸다.

고색창연, 서러운 말을 생각해내고 본관앞으로 발을 돌린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학생도 별로 없고 본관앞에 동그렇게 놓여져 있는 돌의 자에 앉아있던 연인이 나를보자 포옹을 조금쯤고 대화를 시작한다. 중국어.

동경대에 들어오기전 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모습, 그리고 미시마 유키오가 활약을 했던 그 강당을 떠올렸다. 일사불란함, 전인함, 속을 알수 없는 겉으로의 친절함, 그리고 생체실험 내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이다. 뜻밖의 평온함 속에서 나를 반겨준 것은 넓게 펼쳐진 인조잔디 위에서 야구하는 꼬마들이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내게 미소를 준다.

한 눈이 번트를 데고 나갔다. 다음놈은 입금실쯤 되어 보이는 꼬마다. 휘두르는 야구배트가 무거워 보이더니, 한 방 맞춘것이 매굴매굴 굴러간다. 앞서 나간 놈이 2루로 열심히 뛰었다. 투수가 잡아 2루로 던진다. Safe이다.



그런데 그 열살쯤 되보이는, 그중에서 가장나이가 많은 듯한 투수놈은 Out을 외친다. Out, Out 큰 목소리에 꼬마는 Safe를 밟은 외치다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돌아온다. 내가 멀리서 Safe이라고 하니 투수놈은 놀란다. 계속 우길태세이다. 내목소리에 힘이 났는지 꼬마팀은 연방 Safe라고 하면서 다시 뛰어나간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멀리보이는 '佛小林寺'라고 쓰여있는 낡은 건물로 향한다. 평온함이 나를 또 감한다. 열려진 문으로 빠져올려다 보니 도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의 손목을 껴 자빠뜨린다.

호신술을 배우나 보다. 赤門으로 나오려다 보니 아무래도 뒤가 금금해 안내관을 다시 보았다. 분명히 학교안에 연못이 있을텐데 발견을 못 돌려 연못을 찾는다. 그 길에서 나는 누구인지 모를 동상과 마주쳤다. 금금해서 올라가 자세히 보았다. '濃尾先生' 읽는 방법도 모르고 뒤에 붙어있는 악력판의 한자도 해석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57

우리들 문화 - 일기

오른쪽으로 고개를 약간 고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의 주름살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앉혀 놓은 듯하다. 인자함이 느껴진다. 아마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면 학자라고 짐작은 가지만, 그 인자한 모습이 또 나를 섬세하게 한다. 인자한 일본인,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내 눈에 그 동상의 구두 부분이 확대되어 눈에 들어온다. 가죽두두, 그 단단한 가죽구두에 다리를 꼬고 있어서 한쪽 구두는 공중에 들려있다. 나의 선입관은 그새 그 가죽구두를 軍靴로 변하게 만들었다. 엄청난 선입관이다. 연못으로 간다.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여 놓았다.

‘ヒマラヤスギ’ 큰 나무로 둘러싸인 작지 않은 연못이 있다. 다리임을 하느라 벤치를 찾았다. 연못물은 나무 그늘에 가려 검푸르고 작은 동산이 연못가운데 다소곳이 놓여 있고 그 속에 오리둥지. 오리들이 놀고 있다. 까마귀는 계속 온다.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Coffee 장통과 담배꽂조들이 나를 조금은 편안하게 한다.

엄마, 나 오리 맞아?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모처럼 연못의 물고기를 포식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기 오리 : 엄마, 나 정말 오리 맞아?
엄마 오리 : 그걸, 네 이빨도 오인데.....
아기 오리 : 정말 나 오리 맞지?
엄마 오리 : 오동 따라 탕 그러니? 킁킁게시니.
아기 오리 : 그런데 나는 탕 달걀이 돌지.....



눈을 감고 꿈을 꾸다. 누군가 이곳에 앉아 평화를 생각하고 人類를 생각하고, 歴史를 생각하고 그리고 파괴,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서....

누구나 번영거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는 모두가 옳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부분이 옳다고 하는 일은 없는가. 이제 남은 것은 생각뿐이다.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 슬픈생각만 자꾸 떠오르는데 오리 두마리가 날아와 수면에 내려 앉는다.

파문속으로 많은 얼굴들이 어른 거린다. 멀리까지 쫓아온 사랑하는 얼굴들.

이제 네시가 막 지었는데 연못에는 어두움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서 지하철로로 향한다. 동경에서의 첫날은 지하철역의 명쾌한 안내도와 밝은 조명속에서 저돌이 가고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다.

오늘밤 나는 인천 꿈을 꾸고 싶다.

1993. 11. 25일 동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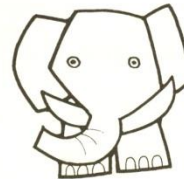
결혼 축하합니다.



서정세
신성진
함정석
박남경
이종철
황경준
박찬일
정우혜
이종영
안윤희
김창태
김정일
우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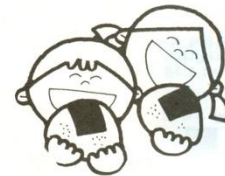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이택주 모친
최원기 모친
곽태근 부친
노근환 부친
박병규 부친
오강환 부친
서동영 모친

세상 나들이 축하해요



차순근 각우
윤성진 경태
윤정환 성재
박강희 상현
오인석 은경
김동식 연지
이한남 재원
서정세 희경
마준석 우
허대근 윤석
서동영 정우
이종철 남우
이정희 연경
이상학 윤선/윤희



회 사 연 력

1. 1973. 11. 27. : 한국코트렐(공업) 주식회사 설립
본 사 : 서울특별시 중구 경동 22-2
자본금 : ₩3,000,000.-
2. 1976. 4. 23. : 자본금을 ₩30,000,000.-으로 증자
3. 1977. 5. 16. : 자본금을 ₩50,000,000.-으로 증자
4. 1977. 10. 30. :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경동 15-5로 이전
5. 1978. 8. 14. : 공해방지 시설업등록 - 보건사회부 제6호
6. 1979. 9. 1. : 인원 공장 준공
7. 1979. 9. 20. : 공장등록 제3-50-4-660호, 인천시
8. 1979. 12. 29. : 자본금 ₩190,000,000.- 으로 증자
9. 1982. 8. 4. : 인천공장 증축공사
10. 1983. 2. 24. : 한국외환은행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11. 1990. 9. 8. : 자본금 ₩322,000,000.- 으로 증자
12. 1990. 9. 28. : 자본금 ₩2,000,000,000.- 으로 증자
13. 1990. 11. 5. : 한국코트렐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4. 1990. 11. : 대만지점 설립
15. 1991. 9. : 상공부지원 공업기반기술 [한국형 전기집진기]
16. 1992. 8. :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17. 1992. 9. 22. : 자본금 ₩2,740,000,000.- 으로 증자
18. 1992. 10. : 기업등록(중관관리위원회)
19. 1992. 10. : 상공부지원 공업기반기술 [쓰레기 소각로]
가스처리장치 연구업체로 선정
20. 1992. 11. :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1. 1993. 6. 3. : 제 1회 환경대상(환경과학기술부문) 수상
- 환경청 & 조선일보 공동제정
22. 1993. 6. 25. : 방직시설업등록 관할지청 변경
- 서울지방환경청
23. 1993. 7. 16. : 자본금 ₩3,000,000,000.- 으로 증자
24. 1993. 9. 10. : 주권 창외시장에 등록

KOREA COTTRELL

하늘지기 20년



하늘은 파랗게, 강산은 푸르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들—
한국코트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산업을 집진설비 만들기
지난 20년,
아름다운 순수강산, 푸른 하늘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말뚝이 온 한국코트렐은 93년 제 1회 환경대상 환경과학
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기술인건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집진설비의 국산화와 고효율화를 통해 지난 92년
1억불 수출고를 달성하기도 한 한국코트렐—
앞으로도 첨단 환경과학기술연구와 연구개발에 더욱
진력하여 지구환경보존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kc 한국코트렐 (주)